

전남도, 농업인 월급 최대 250만원 받는다

6월 말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대상 모집
지급 시기 월·분기 농가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

전남도는 매일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들이 자금운영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남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비·사과·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신청 기준면적을 비 4100㎡에서 3500㎡로 낮췄고,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했다.
지급 시기도 매일 지급하는 방식에서 격월과 분기를 추가해 농가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도내 총 7334개 농가가 사업에 참여해 약 15억원의 이차지원

택을 받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매일 최대 25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전남도와 시·군이 선 지급에 따른 이차비를 보전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전남도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순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들은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린다”며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냉·온탕 널뎨 1월...기온
변동폭 48년만에 최대치
1일~12일 추웠다가 13일부터 따뜻

냉탕과 온탕을 오간 1월엔 기온 변동폭이 48년만에 최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달에는 이례적으로 고온현상이 지속돼 같은 기간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았고 13일 이후로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기온변동폭이 19.6도로 매우 커 기상 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지난 1973년 이후로 48년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기온변동이 매우 컸던 이유는 북쪽으로는 음의 북극진동이, 남쪽으로는 라니아 및 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강한 대류 활동이 대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한파가 물러왔던 이유로는 북극기온이 높아 제트기류가 약해졌고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대륙고기압이, 북동쪽에는 저기압이 발달해 찬 북풍 기류가 강화된 점이 꼽혔다.
13일 이후로는 찬 대륙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 특히 지난달 21일~25일에는 5일 연속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1월에는 이례적으로 전국에 고온현상이 지속되며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시베리아 지역에 고온현상이 나타났고 아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 강수량은 두번째로 많았으나 고온으로 인해 눈보다는 비가 주로 내려 적설은 이례적으로 가장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정기자



한국 명절 문화 배우요 강진군 강진읍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결혼 이민 여성들을 위해 마련한 한국 명절 전통 예절교육이 이루어진 가운데 참가 여성들이 강사의 지도로 세배 풍습을 배우고 있다.

전남산 소고기·돼지고기 안전성, 검사결과 모두 '적합'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안전성 검사
제수용·선물용 15개소 110건 수거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가공품과 소고기·돼지고기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햄·소시지 등 제수용·선물용 식육가공업체 15개소의 제품 36건과 22개 시·군의 식육판매업체에서 진열·판매한 소고기·돼지고기 110건을 수거해 이뤄졌다.
수거 제품은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또 식품 첨가제로 식육 고유의 색을 보존하

는 발색제, 색깔을 내기 위한 타르색소, 식육의 부패를 방지하는 보존료 등의 허용기준 위반 여부도 분석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도를 확인하기 위한 부패도 검사와 일반 세균수·대장균 등 위생 지표균 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식육판매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미생물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위생관

리 기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앞두고 신속한 수거 검사로 도내 가공·판매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고 힘든 시기지만 안전한 전남산 축산식품으로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설·추석 성수기에 축산물가공품 57건, 식육 113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